

본각스님이 직접 쓴

6남매 출가 이야기

(혜근·천제·적조·보명·삼소·본각 스님)

부모님의 얼굴을 나는 사진을 통해서 알 뻔하다. 어릴때 부모님 얼굴을 모른다고 했더니, 큰 형이 친척집을 다 뒤져서 도민증에 붙었던 아버지 사진과, 친구 분들과 나들이 가서 찍은 어머니 사진을 구해다 주었다. 그리고 그 뒤에 태백산 홍재사에서 어머니의 보살계 수계산림 회향기념으로 찍은 사진을 얻었다. 그 사진에는 아버지와 큰 형이 빠지고 모친과 다섯 형제가 들어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재가(在家) 시절 가족에 대한 기억의 전부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

형들은 부모님, 특히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행복한 얼굴이 되곤 한다. 아버지는 훈장을 지낸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제대로 글공부를 하지 못했기에, 자나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무척이나 자상하셨다. 당시 지방명문이었던 마산중학교에 큰 형(천제 스님)이 합격하자 큰 형을 위해 그 여름 마산으로 이사하셨다가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 지금도 큰 형은 마산을 지날 때면 "마산은 아버지와 이별한 회한의 땅"이라는 말을 되뇌어곤 한다.

부친 천도 위해 성철스님 만났듯이 출가 계기

신장 표(表)인 어머니는 과묵하고 집안은 분이었다. 우리 여섯 남매를 키우는 것을 생의 전부로 여겼던, 전형적인 이 땅의 어머니의 모습을 지녔다. 어머니는, 뒤에 스님이 되신 친척 고모님의 권유로, 한을 남기고 떠나신 아버지를 위해 49재를 지내 드리기로 했다. 고승으로 이름높은 성철 스님을 찾아뵙고 부친의 천도를 부탁드린 것이 우리 일가의 불교와의 인연의 시작이다. 부친의 사망이 계기가 되어 우리 육남매는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부친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참담한 마음으로 있던 큰 형(천제 스님)은 부친의 49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신변을 정리했다. 그리고 곧바로 통영 안장사 천제굴에서 수행하시던 성철 큰스님께 귀의했다. 나이 15세였다. 출가 암자인 천제굴의 '천제'는 뒤에 큰 형의 법명이 되었다. 그 때가 1952년. 부친이 사망한 해이면서 내가 이 사바세계에 나온 해다. 지금도 혜근 스님이 외우고 있는 글은 당시 형이 느꼈을 인생무상을 뼈저리게 표현하고 있다.

"오호 애재라, 부세사(浮世事)여, 인생은 왜 알았을 모른는가. 석화(石火) 같은 인생의

평생, 인생은 죽음의 길을 행하면서 왜 공포심이 없으며, 왜 생로(生老)를 찾지 않고 슬프다 인생사여, 아무리 친해도 이별이 있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려도 사시(死時)가 있으니, 이 어찌 하련고. 벼슬이 높으면 죽지 않는가, 생사에 얽매인 부세인(浮世人)이여, 순한번 잘못 쉬면 가는 이 세상, 일시 속속 성불도(日時 速速 成佛道)" 라는 내용의 편지를 당시 친구에게 보낸 것을 누나가 보았고 지금까지 인생무상의 경구로 삼고 있다.

1년 뒤 큰 언니가 출가를 결심하자 모친은 남편을 보내고 두 팔처럼 믿었던 두 자식까지 출가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도 출가를 결심했다. 모친은 다섯 명의 자식에게 출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나에게는 출



1968년 해남에서 성철 스님을 모시고 6남매가 함께 찍은 사진. 뒷줄 왼쪽부터 적조(셋째), 보명(넷째), 천제(둘째), 현경(큰 언니) 스님, 모친(삼소스님의 은사) 스님, 앞줄 왼쪽부터 삼소(다섯째)스님, 성철 스님, 본각(막내), 인홍(혜근스님의 노스님), 혜근(첫째) 스님.

“부처님 家系 이으며 육바라밀 수행자로”



1968년 혜근 스님을 찾아 답소를 나누며 조계 사찰을 견고하고 있는 적조 스님과 본각 스님(오른쪽).

리고 비로소 상황이 바뀐 것을 알아차리고는 마음이 몹시 쓸쓸했다고 회상하곤 한다. 그렇게 출가해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여섯 남매는 큰 언니 혜근 스님, 큰 오빠 천제 스님, 둘째 언니 적조 스님, 셋째 언니 보명 스님, 둘째 오빠 삼소 스님, 그리고 나 본각이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마음 속으로 우리 형제를 육바라밀 수행자라고 부르곤 한다. 혜근 스님(마산 금문사)은 보시바라밀, 나는 지혜바라밀. 어쩌면 그렇게 수행하고자 하는 열원에서인지도 모른다.

혜근 스님(69)은 그야말로 온통 베푸는 보시의 삶을 살고 있다. 월정사 적멸보궁에서 부처님께 손가락으로 등명(證明)을 삼아 밝히고, 우리 6남매 모두가 참다운 수행자로서 살아가기를 서원하는 소신공양을 행한 일이 대표적인 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 수년동안 기도도 써 베풀어 준다. 1년 전부터는 하도 열심히 능엄주 기도를 하기에 누구를 위한 기도나 고를어보았더니, 사제 스님 절의 불사 원만

수십년 변함없는 진가(陳家)네 호적등본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 진가(陳家)네 호적등본은 정지한 듯 변함이 없다. 지난 1982년 내가 일본유학을 준비할 때 여권 발급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호주를 큰 형으로 바꾼 것이 단 한번의 변화였다. 아마도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난 표시가 기재될 것이다. 차례대로 떠나자고 약속했으니 막내인 내가 마지막까지 호적등본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성취와 내년에 있을 사기 야다타(국제여성불교대회) 대회의 성공, 그리고 누구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 해 주었다.

천제 스님(조계종 법규위원장·65)은 성철 큰스님의 딸 시봉인 관계로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스님이다. 15년간 총무원 총정사서실을 지키면서 남다른 면모를 간직해온 분이다. 이제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뒤늦게 큰스님의 뜻을 펴고자 부산 큰스님 인연 터에 가르침을 받드는 봉훈(奉訓)의 전각을 짓느라 현재 애를 쓰고 있다.

발앞서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것을 적조 스님의 꾸중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넷째 보명스님(58)은 형제 중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해 몸이 병약하다. 성격도 솔직 담백해서 금방 화를 냈다가도 씩씩 웃으면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스님이다. 15년간 총무원 총정사서실을 지키면서 남다른 면모를 간직해온 분이다. 이제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뒤늦게 큰스님의 뜻을 펴고자 부산 큰스님 인연 터에 가르침을 받드는 봉훈(奉訓)의 전각을 짓느라 현재 애를 쓰고 있다.

다섯째 삼소스님(부산 정혜사·56). 젊었을 때 오륙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1년에 한두 번 만나서는 그 속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어떤 때는 속마음조차도 숨겨놓는 무심도인이다. 늘 깔끔하고 정갈하다. 지금 살고 있는 작은 토굴도

- 혜근스님-어려운 이 위해 늘 기도하고 베푸는 삶
- 천제스님-은사스님 엄격한 수행가풍 그대로
- 적조스님-배려하는 마음의 필요성 일깨워 줬
- 보명스님-형제중 제일 고생...솔직 담백, 인정 많아
- 삼소스님-속마음 조차 없어보이는 무심도인
- 나, 본각-수행자 집안의 일원임을 잊지 않고자

셋째인 적조 스님(서울 금강사·63). 위로 세 형제(천제 혜근 적조)가 아래 세 형제의 교육과 생활 전반을 맡아서 지도하기로 약속을 했다. 나는 적조스님의 담담이다. 1967년 이래 석남사, 운문사에 함께 있으면서 내 고향집이, 밥 먹는 것, 웃고 이야기하는 것, 도반들과 사는 일상에 이르기까지 적조스님께 꾸중을 듣지 않은 항복이 없다.

자랑스럽게 '망한' 집

석남사에서 발우 공양할 때, 남은 두 깍두기 하나 먹으려고 집시의 국물까지 뒤아 먹다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 "깍두기가 하나 남았으면 먹지 말고 그대로 남겨둬야 많이 남은 어른이 찬상에 되돌려 놓을 것 아니냐"는 불호령이었다. 다른 스님들이 잔뜩 털었다가 도로 내놓을 것까지 마음을 써야 하나 하는 억울함이 가득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도 남을 가르치면서 때로는 한

자제를 사서 혼자 지었다고 한다.

나 본각(52)은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께 걱정을 남겼고 형들께 고생을 끼쳤다. 이제 50을 넘기면서, 학자이고 교수 이전에 언제나 수행자 집안의 일원임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늦게 철이 난 탓인지 요즘 들어 부쩍 부모님과 스승님, 형들의 은혜에 감사하다. 참다운 승려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수록 모든 분들께 보은하고 싶다.

"너희 집안이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다"며 위로하던 동네 친척의 말과 같이 세속에 사는 '망한' 집안일지 모르지만 우리 육남매가 부처님 법의 집에 다시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계(家系)를 이어가려는 것이 자랑스럽다. 부처님의 가계를 더럽히지 않는 수행 생활이 되도록 정진하고자 한다.

글 = 본각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현 '살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군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 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 전생티행 파동명상-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 원격제령 파동명상-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시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사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명식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5월 3째주, 5째주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 또는 빙의령과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이 코너는 저희 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스님·법사님들의 놀라운 경험담을 싣고 있습니다.

동방파동 명상학회 대구광역시 지회장인 성호스님.

동방파동 명상학회 대구광역시 지회장인 성호 스님(☎011-9793-6420)은 지난 여름 어느 날 (2002. 8월) 어느 중가 집 중순에게 시집가서 결혼 5년이 지나도록 임신을 하지 못하여 애매우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신도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평소 그 부부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었고 병원에서의 의학적 소견으로도 임신 을 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님은 파동명상요법으로 왜 그 여성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지 그 문제의 근원에 접근해보았는데 그 결과 그 여성의 자궁 속에는 놀랍게도 그녀의 죽은 친정어머니의 영혼이 들

어 있어있었고 그 여성이 임신이 잘되지 않은 이유가 그 어머니 영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스님이 파동명상요법으로 그 영혼을 불러 내어 왜 그곳에 있어느냐고 물어보니 자신은 한평생을 너무나 가난하고 한 달씩 살았는데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풍요롭고 좋아서 딸의 몸을 빌려 다시 이 세상에 빨리 나오고 싶어 딸의 자궁 속에 숨어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스님은 그 영가를 잘 타일러 천도를 해주었는데 그 후, 그 여성은 그렇게 소원하던 임신을 하게되어 지금은 산달이 가까워져오고 있다고 한다.

동방명상전생연구회

◆ 문의처: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www.dongbang21.co.kr